

한국의 중국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의향 및 조건 조사

-하병기 선임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실)

1. 출장 개요

- 출장자: 하병기(선임연구위원, 산업경제연구실)
- 출장 일정: 2009년 5월 30(토) - 2009년 6월 4일(목)
- 출장 지역: 중국 청도, 대련, 북경
- 출장 목적: 한국의 중국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의향 및 조건 조사

2. 주요 조사 내용

한국 투자의사

-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 등 투자 요건을 고려할 경우 한국 투자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.

- 시장 침투 혹은 임금 등으로 중국 시장을 목적으로 투자하였으므로

로 다시 한국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으며, 중국 내수시장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.

○ 몇 개 기업은 한국 투자시 중고 설비투자의 한국 이전 여부,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해 질문

- 최근 환율 변동이나 중국 투자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중이나 쉽지 않음.

- 중국내에서는 청산시 과거 관세 유예, 세금 정산, 외환 관련 정리 등 청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경영시스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쉽지 않음.

- 모 대기업의 경우에도 청산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림.

○ 중국내 투자 여건 악화와 청산의 어려움으로 최근 한국 투자기업의 야반도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, 이러한 야반도주는 일본 및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

- 일본 언론에 비해 한국 언론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보도한다고 비평

○ 중국내에서는 청산 자체가 어려워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회귀하여 투자하는 것이 어려움.

- 현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러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

□ 시사점

○ 중국 정부와의 양자간 협상이나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통하여 중국 내 기업 청산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.

- 해외직접투자시 투자대상국의 제도 및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.